



고용지표 악화에 따른 추가 양적완화 기대 확대

김세중 선임연구원

- 5월 비농업 취업자 수 증가율이 시장전망치를 크게 하회하고 실업률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짐.
 - 6월 1일 미 노동부는 5월 미국 비농업 취업자 수가 시장 예상치인 15만 명을 크게 밑도는 전월대비 6만 9,000명 증가에 그쳤다고 발표하였는데, 이는 최근 1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서 경기둔화 우려를 증폭시켰음.
 - 5월 민간부문 취업자 수는 시장 예상치인 16만 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8만 2,000명 증가에 머물렀고 정부부문 취업자 수도 1만 3000명이나 줄었으며, 4월 민간부문 취업자 수도 13만 명 증가에서 8만 7000명 증가로 하향 조정됨.
 - 5월 실업률은 전월대비 0.1%p 상승한 8.2%로 나타났는데, 이는 5월 노동시장 참가율이 전월대비 0.2%p 상승하는 등 구직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됨.

- 5월 고용지표 악화와 그리스,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위기 확대로 경기부양을 위한 연방준비위원회의 추가 양적완화 실행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으로 보임.
 - 6월 2일 로이터 통신이 15개 대형 금융 기관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방준비위원회가 3차 양적 완화를 실시할 가능성은 평균 50%로 조사됨,
 - 그러나 미 연방준비위원회는 6월 6일 발표한 ‘베이지북(beige book)’에서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기존의 경기 판단을 유지함.
 - 한편, 6월 6일 재닛 옐런 연방준비위원회 부의장은 보스턴 강연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가 경기부양책을 제공할 여지가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히면서 연방준비위원회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가능성을 시사하였음.

(Washington Post, 6/1 등)